

“무주로 제3현충원 유치”

이성수 의원 5분 발언 무산된 기업도시 예정부지에… “상실감 치유”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사진)이 제26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현충원과 각종 연수원 및 콘도 체인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충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성지



인 만큼 전 국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풍수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호국의 기가 서려 있어야 하며, 수십만 평 이상의 단일부지가 필요한데 무주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제2현충원(대전광역시 소재)이 5년 이내에 만장일치로 예정되어 정부에서 제3현충원 신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2월 연천군에서 제일 먼저 현충원 유치 의사를 나타내며 발 빠르게 움직

이고 있는 만큼 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른 상실감 치유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정치권이 함께 무산된 기업도시 예정부지에 현충원을 유치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연수원과 콘도 체인점을 유치해 고정된 고객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부지 확보에 협력하고, 군유지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노인순환버스에 재미를 더하다

무주군, 버스 안에 TV 위성방송 설치

무주군은 노인순환버스에 재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TV 위성방송을 설치해 이동시간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 것.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무풍, 설천, 안성, 적상, 부남면과 무주 종합복지관을 오가는 45인승 대형 버스에 43인치 TV를 설치했다. 무주군 노인순환버스는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과 노인대학 수강을 돕기 위

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버스를 이용해 하루 35명 정도가 안성/적상 구간(월, 수, 목), 부남/적상 구간(목), 무풍/설천 구간(화, 금)을 오가고 있다. 김 모 할머니는(78세, 무풍면) “차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니까 금새 도착하는 거 같고 좋다”라며 “복지관 가는 날이 이제는 더 기다려진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 모집

진안군은 12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할 2018년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용담호 상시감시와 계도, 정화 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올해 45명을 채용한다.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류접수를 실시한다.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공고일 현재 진안군(용담호 상류 8개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자로 상수원 관리에 대한 의식과 책임감이 강한 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지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과 일자리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70세 미만(1999년생~1949년생)인 자와 격년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연령 제한과 격년제 등 조건을 완화하여 재공고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노인 일자리 분야 행안부장관상 수상

‘고향할머니장터’ 운영 성과 인정받아

진안군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일산 컨테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 ‘고향할머니장터’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행정안전부, 한국일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로 지방정부의 대표 일자리 사업을 한곳

에 모아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 ‘고향할머니장터’는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정성스레 재배한 무농약 농산물을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에서 진안장날(4, 9일)과 주말시장(토, 일요일)에 운영되는 정터다. 2015년 10월 개장하여 현재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철 농산물, 가공품(두부, 메주, 묵 등) 등 판매를 통해 노인층의 가용소득 창출

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은 ‘고향할머니장터’ 활성화를 위해 카드 결제기 설치와 전용 포장재 제작·배부, 농산물 매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매일 1회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장 인근 학천지구에 대해 주차장을 조성해 마이산으로 오는 관광버스의 시장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할머니장터’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창수 전 장수농협조합장 출판기념회

무소속으로 장수군수 도전

장수농협조합장 출신인 김창수(65) 전 조합장은 10일 장수한누리리전당에서 장수군의 위기흥 의장과 기관단체장들을 비롯한 2,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6.13지방선거 장수군수 도전 행보에 본격 나섰다. 출판기념회에선 한호선 전 농협중앙회 회장, 현의송 전 농민신문사 대표, 일본 오히라현 오아비농협의 이하다 세이고 조합장, 이상일 전 서강대 총장, 신병호 전 장수군교육장의 축하 메시지 및 조현래 전 CJ 제일제당 사 업용식품 R&D장의 축하영상을 전했다. 특히 이하다 세이고 조합장은 지난

장계농협 시절 인연을 소개하며 농민의 판로확장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수 전 조합장은 자신의 저서 ‘그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에서 자신의 인생이야기와 아버지를 통해 ‘근면과 성실’과 ‘언제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배움을 되새기며 지난 43년의 농협 생활을 통해 고향 장수를 향한 열정과 장수군 지역발전을 위한 소회를 밝혔다. 장수군수에 도전하는 김창수 전 조합장은 “장수에게 창수가, 창수에게 창수가” 숙명의 슬로건이라며 “새로운 장수를 만드는데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가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은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별도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실행 유무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대상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김충성 소장은 “119 고객지원단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8개 마을을 찾아가 농업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안기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처음 활동을 시작한 현장행정 119 고객지원단은 무주군 6읍면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0개 마을을 방문해 431명의 농업인들을 만나 영농기술과 관련한 479건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67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도직 특화작목 기술 전문화 주력

장수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화작목의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도직 공무원의 지역특화작목 기술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환경변화와 기술 수준 향상에 따른 능동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갖추고 영농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학습공동체를 2015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5품목 29명으로 운영되는 학습공동체는 품목별 팀을 나누어 연구과제를 지정하고 영농시기별 현장의 문제점과 연구 결과를 매달 직무연찬 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며 연말 최종발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품목별 주1회 영농현장 현지출장을 통해 농가와 공무원 간의 상호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발견된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하

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현지 출장 시 경력이 많은 지도사가 신규 지도사 7명과 동행하며 현지 지도기법, 당면영농 추진상황, 병해충 진단요령,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방법 등을 직접 보여주어 현장적응력을 높여주고 있다. 이날 현장 직무연찬에 참가한 신규 지도사는 “영농현장에서 농작물 생육상황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과 문제해결 방법을 경험 많은 선배 지도사로부터 배워 현장지도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사업비 지원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소장 류지봉)에서는 지난 9월 2018년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비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7일

부터 23일까지 접수된 51개 동호회, 지원 신청액 2억100만원에 대해 사업수행 적격 여부 및 지원액 등을 심의해, 이 중 48개 동호회에 사업비 1억4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수군은 생활문화예술동

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교류지원 1000만원 △행사 참여비 4300만원 △생활문화시설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운영비 3500만원 등 전년보다 약 5000만원을 증액한 2억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현재 7개 분과 88개 동호회 1,555명이 등록되어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전기자동차 9대 보조금 지원

4월 2일까지 접수

진안군은 대기환경개선과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전기자동차 9대를 민간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며,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800

만원부터 최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진안군에 2년 전부터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법인이다. 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로 구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희망차종을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